

“새만금의 마지막 갯벌 ‘수라’ 살리기 동참해 주세요”

광주극장서 관객과의 대화 다큐멘터리 '수라' 황윤 감독

갯벌 지키려는 이들의 여정 7년간 촬영 '잔잔한 반향' 성금으로 '100개 극장 프로젝트'... 16·28일 수라 탐방

“7년간 수라 갯벌을 촬영하면서 ‘다행이다’, ‘부끄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활동가도 아니고 동호회도 아닌,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 회원들이 수십년 동안 조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건 아름다운 수라갯벌을 사랑하는 만큼, 그 갯벌을 지켜줘야 한다는 생각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1991년 공사가 시작된 새만금 간척사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2006년 마지막 물막이 공사가 끝난 뒤 많은 이들이 ‘진 싸움’이라고 체념했지만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 등 지역민들은 묵묵히 생태환경을 조사하고 기록해왔다.

영화 ‘수라’는 간척사업으로 말라가는 ‘수라’ 갯벌에서 기적처럼 살아남은 도요새, 검은머리갈매기 등을 만나며 ‘수라갯벌의 아름다움’을 알고 사랑에 빠진 이들이 수라를 지키고 위해 걸어온 여정을 담고 있다.

개봉 후 3만여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잔잔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다큐멘터리 ‘수라’의 황윤 감독이 8일 광주극장에서 관객과의 대화 행사를 가졌다.

황 감독은 동물원을 소재로 한 ‘작별’, 로드킬 문제를 다룬 ‘어느 날 그 길에서’ 등 인간과 환경, 동물에 대한 작업을 이어왔다.

이경희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과 함께 한 이날 행사에는 ‘수라’를 ‘n차 관람’한 이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영화를 보고 난 후 눈물을 흘리며 감독에게 고마움을 전한 관람객도 있었다.

새만금의 마지막 갯벌인 수라갯벌은 천연기념물인 저어새 등 50여 종의 멸종 보호종을 포함한 수백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 하지만 수라갯벌이 새만금 공항이 들어설 부지로 확정되면서 이 곳을 지키려는 이들의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수라’는 관객들이 직접 상영관을 연 캠페인



“100개의 극장” 프로젝트 덕에 개봉 첫 주 159개 극장에서 관객들 만났다. 황 감독은 “엔딩 크레디트에 담긴 많은 이들이 함께 영화를 완성해 간

셈”이라고 말했다. 황 감독은 이 작품이 ‘성장영화’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조사단으로 활동하는 아빠 오동필씨를 따라 어릴 때부터 갯벌을 찾았고 지금은 대학생이 돼 아빠와 함께 활동하는 오승준씨와 황 감독 자신의 아들, 그리고 자신 모두가 수라와 함께 한 시간 동안 흘려 자랐다는 설명이다.

영화는 갯벌의 아름다움과 생명의 경이로움을 줄곧 보여준다. 아기사라를 품고 있는 검은머리갈매기의 모습 등은 감동적이다. 반면 간척사업으로 물길이 막히면서 폐사한 조개나 죽어가는 새들의 모습은 충격으로 다가온다. 영화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광대한 갯벌은 신안 갯벌을 드론으로 촬영했다. 새만금의 갯벌 역시 예전에는 같은 모습일 터였다.

“영화는 남아있는 것들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이야기합니다. 한 번 사라지면 영영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새만금 사업이 잘 보여줍니다. 갯벌은 나뭇가지 같기도 하고, 사람의 혈관 같기도 합니다. 얼마 전 초등학교생들과 영화를 봤는데 ‘갯벌이 폐갈다’고 말하더군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는 각자의 ‘수라’가 있습니다. 신안 갯벌일 수도, 영산강일 수도 있지요. 사라지고 나서 후회하기 전에 소중한 곳들을 귀하게 여기며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영화를 찍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축복같은 시간이었다고 말하는 황 감독은 ‘수라 갯벌의 친구들’이 되어달라고 말했다. 16일과 28일 열리는 수라갯벌 탐방 행사에 참여해도 좋고 영화관을 찾거나 공동체 상영 등을 통해 ‘수라 갯벌’의 존재를 잊지 말아달라고 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사진=스튜디오 두마 제공)



적십자 광주전남혈액원-광주세무서 헌혈 협약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원장 김동수)과 광주세무서(서장 나향미)가 지난 7일 헌혈의집 총장로센터에서 생명나눔을 위한 헌혈 협약을 체결했다.

두 단체는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기적 헌혈 동참, 기부 및 자원봉사 참여 문화 확산,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 등의 협력을 약속했다.

나향미 광주세무서장은 “이번 협약이 지역 내 혈액수급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전 임직원이 생명을 살리는 헌혈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10여 명의 광주세무서 직원들이 협약식 이후 직접 헌혈에 동참해 그 의미를 더했다.

/이유빈 기자 lyb54@kwangju.co.kr

임동신 재경목포·김상만 재경진도 향우회장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명예홍보대사 위촉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사무국은 지난 10일 서울에서 임동신(사진 왼쪽) 재경목포향우회회장과 김상만(오른쪽) 재경진도향우회 회장을 2023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사무국은 올해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주전시가 목포와 진도 일원에서 열리는 점과 재경향우회 회원이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들을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들은 앞으로 2023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를 향우회원과 수도권 시민들에게 알리는 다양한 활동에



나서게 된다. 오는 9월 1일 개막하는 2023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는 ‘물 드는 산, 멈춰선 물-송고한 조화 속에서’를 주제로 10월 31일까지 목포시와 진도군 일원에서 펼쳐진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대병원 발전후원회 ‘후원의 밤’ 행사

전남대병원 발전후원회가 지난 7일 라마다플라자 충장호텔에서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

“미래 의료를 위한 동행, 함께 라서 따뜻합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전남대병원의 교육·연구·진료 등 발전을 위해 기부한 후원인들을 초청해 감사와 존경을 표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정성택 전남대병원 이사장·전남대 총장, 안영근 전남대병원장, 허정 전남대병원 발전후원회 이사를 비롯해 70여명의 후원인과 서삼석·이병훈·민형배·이형석·이용빈 국회의원과 등 각계 각층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안영근 전남대병원장은 “발전후원회는 타인의 기쁨을 먼저 생각한 아름다운 마음이 모여 커다란 봉우리가 됐다”며 “수바이저 박사는 ‘사랑은 나눌 때마다 두 배가 되는 유일한 것’이라는 말을 남겼듯이 후원회가 여러분이 나누어주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가치를 되새기고, 더 큰 사랑으로 이어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5년 창립된 전남대병원 발전후원회는 지난 18년동안 1596명에게 후원금 105억 6000여만원을 기부받았으며, 후원금은 미래 의료 발전을 위한 교육, 연구, 소외계층 의료지원 및 국내외 공공의료사업에 지원하고 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성진기 전남대 명예교수, 12일 ‘밤마실 인문학’ 강연

성진기(사진) 전남대 철학과 명예교수가 광주시 동구청이 진행하는 동구 인문대학 ‘함께 나누는 밤마실 인문학’에서 강연한다.

성 교수는 12일 오후 5시 동구청 강당에서 열리는 행사에서 ‘나를 어떻게 사랑할까’를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한국니체학회 회장을 역임한 성 교수는 25년여 동안 인문학 동지 카페 필로소피아를 운영하며 시민들과 철학책을 함께 읽고 있으며 중년을 위한 철학 수업 ‘품위 있는 중년 인생 프로젝트’ 등을 진행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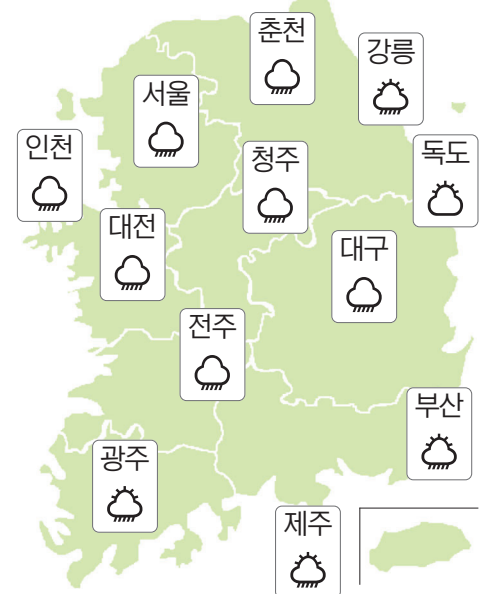
해돋이	05:26	달뜨기	00:28
해질	19:49	달짐	13:55

폭염 식히는 비

폭염주의보에 더운 날씨, 가끔 비 내리겠다.

광주	가름 비	25/29	보성	가름 비	23/27
목포	가름 비	25/29	순천	비	25/28
여수	가름 비	24/26	영광	가름 비	25/29
나주	가름 비	24/28	진도	가름 비	24/28
완도	가름 비	24/29	전주	비	25/30
구례	비	24/29	군산	비	24/28
강진	가름 비	25/29	남원	가름 비	24/28
해남	가름 비	25/29	흑산도	가름 비	22/26
장성	비	24/28			

◇ 전국 날씨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파고 (m)	파고 (m)	파고 (m)	파고 (m)
서해 남부	앞바다	0.5~1.5	0.5~1.5		
	면바다(북)	1.0~2.0	1.5~2.5		
	면바다(남)	1.0~2.0	1.5~2.5		
남해 서부	앞바다	0.5~1.5	0.5~1.5		
	면바다(서)	1.0~2.0	1.0~2.0		
	면바다(동)	1.0~2.0	1.0~2.0		

◇ 물때

목표	간조		만조	
	01:02	08:22	13:42	21:06
여수	09:31	03:03	21:56	16:04

◇ 생활지수

식중독	자외선	미세먼지
주의	낮음	좋음

◇ 주간 날씨

12(수)	13(목)	14(금)
☁	☁	☁
25/30	25/29	25/29
15(토)	16(일)	17(월)
☁	☁	☁
25/30	25/30	24/31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01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1 FAX 062-222-4938, 222-4918

알림

- ▲스마트폰도 배우고, 인생2막 정보 공유 모임=완전 무료. 60대 이상 초보자 환영. 스마트폰 기초부터 영상편집까지 배우기+ 성공적 인생2막을 위한 정보 나누기. 매주 수요일 오전 9시30분~12시, 금남동 1가 예정. 010-2626-5018
- ▲광주 북구민을 위한 개인 무료 법률상담소=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정, 저소득층, 영세민, 고교소 복역자, 사회취약계층자 무료상담 010-6444-8572.
- ▲광주시·전남도 재난심리복지지원센터 무료 상담=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으로 심리지원을 위한 무료상담 1670-9512.
-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프로그램 신청=취업상담, 직업훈련, 일자리알선, 취업교통비 지원 등 취업지원 및 긴급원호, 숙식제공, 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 ▲청소년전화 062-1388=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시간 전화상담.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학대 신고=연계된 노인학대로 힘들어 하고 계신 분들, 노인학대를 목격하시거나 알게 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1577-1389.
-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 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문제(알

- 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마음건강강추치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 상담 062-654-3802.
-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 후 돌봄 이용안 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식식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062-522-9976.
-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061-285-1161.
- ▲이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 결혼가정 아동, 경제적 사정, 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이 있는 3세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222-1095,1096.
-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방과 후 돌봄 이용안 내·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교육·정서지원·문화체험·식식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062-522-9976.
-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 무료 상담=민사·형사 소송 이전 법률상담과 법교육, 조력기관 연계 등 1차 법률서비스 지원 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061-285-1161.
- ▲이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 결혼가정 아동, 경제적 사정, 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이 있는 3세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222-1095,1096.

모집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위탁부모=부모 사망, 이혼, 실직, 가출, 학대 등으로 친부모와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위탁할 인원 상담 062-351-1206.
- ▲플랫폼총합희망자 교육생 모집=스마트폰 사용 가능자 수시모집, 5-6명 이면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플랫폼창업동호회 062-511-0030.
- ▲신창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모집=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남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 후문 80미터 010-4622-7838.
- ▲시니어플러너지도사(자격반) 모집=시·군·구 자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010-5522-9700.
-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 모집=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만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062-232-4953.